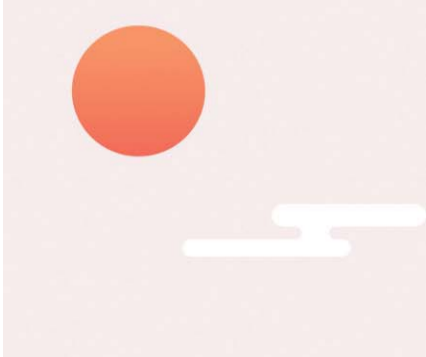


“세계 경제질서 붕괴… 대한민국 ‘원팀’ 돼 위기극복 해야”

경제 6단체장 신년사



이환위리(以患爲利)
고난을 극복해 오히려 기회로 삼는다.

금석위개(金石爲開)
어떠한 어려움도 굳은 의지로 이겨낼 수 있다.

환부작신(換腐作新)
썩은 것을 도려내어 새 것으로 바꾼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환위리, 금석위개, 환부작신. 경제계가 2023년 새해를 맞아 내놓은 신년사에서 강조한 사자성어들이다.

2023년 경제단체 신년사는 그 어느 때보다 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 팬데믹이 안겨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을 중심으로 한 '3고(高) 복합위기'가 엄습해왔다. 한국 경제는 올해 1%대의 성장률에 머물 전망이다.

해를 넘어서도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저성장, 미국·중국의 갈등을 비롯한 자국 중심의 정책과 높은 무역 장벽 등 대외 환경도 녹록치 않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은 ‘빨간불’이 켜진지 오래다.

경제단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파도를 넘어서야 한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전했다. 한국 경제가 어려운 시절이 없었듯이 이번에도 반드시 넘어설 수 있다고 덧붙이면서다. 특히 이를 위해선 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 정치권 등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획기적인 규제 개혁과 더욱 자유로운 기업의 투자·활동 보장, 경직된 노동환경 개선 등을 주문했다.

경제를 지탱하는 기업 등 경제주체들에게는 ‘도전’, ‘혁신’, ‘함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 경제 어렵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신년사에서 “미·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인 긴장이 언제 해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세계 경제는 기존 질서가 붕괴되고 새로운 질서가 정착되기까지 상당기간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각종 경제지

표들은 견고하지 못하고 방향성에 대한 신뢰도 약해지면서 기업활동을 더욱 움츠러들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도 “2023년에도 대내외 경제 환경은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국가 간, 진영 간 대립이 심화되면서 이른바 냉전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며 “국내외 경기둔화로 자영업자, 한계기업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커지고 글로벌 통상 환경의 악화가 수출중심의 한국경제에 큰 위협요인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구자열 무역협회장은 “올해에도 세계경제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을 전망”이라면서 “지난 30년간 이어진 세계화의 흐름이 후퇴하며 상품과 투자의 흐름이 둔화되고 있고 미·중 갈등은 무역을 넘어 기술과 공급망 분야로 확산되고 자국 내 제조역량을 강화하려는 주요국 간 경쟁이 심화되며 국

가 간 분업과 협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원팀(ONE TEAM)’, 규제혁신, 도전정신
경제단체들은 당면한 거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기업과 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원팀’이 돼 위기극복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합심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최대한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에 도움이 되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나라가 망할 것만 같던 IMF 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절망은 용기를 이기지 못한다. 결국 희망이 이긴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과제도 언급했다.

기업의 99%, 종사자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속기업중앙회는 ▲복합 경제위기 극복과 중소기업 중심 정책 환경 조성 ▲납품단가 연동제 조속 정착 ▲노동개혁과 규제 혁신 성과 제고 ▲중소기업 협동조합 자립기반 완성을 중심으로 한 ‘4대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해 중소기업의 현장의견을 담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중소기업계 뿐만

아니라 경제단체 중 노사 문제를 중심으로 두고 있는 경총도 화두로 제시했다.

김기문 회장은 “고용노동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52시간제를 유연화하고, 외국인력 쿼터를 폐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회장은 “대기업 정규직 과보호에 집중된 제도와 관행은 노동시장의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해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꼬집으며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를 해소해 시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매년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도 이제 상생의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전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바라는 목소리도 어느 때보다 높다.

허창수 회장은 “앞으로 민간의 창의와 혁신이 세계무대에서 꽃 피울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규제개혁을 포함한 기업환경 개선에 적극 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언급했다.

최진식 회장은 “중견기업 특별법” 일몰 폐지 및 내용 전면 개정 등 중견기업 경영 애로를 가중하는 수많은 법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도 잊지 않았다.

최태원 회장은 “어려운 분들을 보듬고 함께 밝은 미래로 가는 것,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발전해 가는 것이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신(新)기업가정신’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새해 화두 ‘생존·혁신·성장’… 디지털화·컨버전스는 숙제

중소·여성 경제단체 신년사

“글로벌, 기업이 추구해야 할 방향 디지털경제, 경영 효율화의 열쇠”

“경제 지속성장·양질 일자리 위해 스케일업 통해 ‘허리’ 튼튼해져야”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 이정환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년사를 통해 “전 세계는 지금 기존산업과 디지털기술을 융합하는 디지털경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국가와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글로벌’은 출발점부터 우리 기업이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이고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온라인·비대면 경험을 통해 많은 이들이 그 위력을 실감한 ‘디지털경제’는 경영효율화와 사업 다각화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병훈 이노비즈협장은 “지혜로운 토끼는 세 개의 굴을 판다”라는 ‘교토삼굴(狡兔三窟)’을 신년사에서 언급했다.

임 회장은 “연약한 토끼가 살아남기 위해서 항상 어려움에 대비하듯이 중소기업도 지혜가 절실한 시기”라며 “자신의 비즈니스를 디지털화해서 모든 데이터를 연결하고, 최종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고, 소비자의 경험으로 진화되는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지혜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은 “우리경제의 지속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스타트업도 중요하지만 성장사다리도 이어지는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통해 저성장·대중소기업 양극화를

완화하는 허리가 튼튼한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이 요구된다”면서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확산을 위한 개별기업의 경영 혁신역량 강화와 함께 원활한 기업승계 및 M&A 활성화, 중소기업 간 협업 등 스케일업 생태계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정환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은 “여성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기업인의 92% 이상이 일하는 것에 행복감을 느낀다고 한다. 자기 일을 즐기며,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강하다”면서 “여경협은 ‘행복한 여성기업’이 만들어갈 희망찬 미래와 무한한 가능성을 위해 힘차게 달려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